

2월 23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2월 23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증시, 은행국유화 `촉각` 실적·지표 `변수`	백악관이 `민간 은행 시스템을 지지한다`며 진화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씨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결국 국유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진정되지 않고 있음.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의 `단기간 국유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발언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음. 이에 따라 지난주 씨티그룹과 BOA 주가는 각각 1.95달러, 3.81달러까지 떨어져 1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
홈디포 등 51개 기업 실적 발표	경기후퇴의 장기화로 인해 월가는 연일 기업발 악재에 시달리고 있음. 톰슨 파이낸셜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42.1% 가량 급감. 이는 10년전 톰슨 파이낸셜이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악의 성적임. 톰슨 파이낸셜의 존 버터스 애널리스트는 "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라며 "이같은 상황이 적어도 올해 3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봄. 이번주에는 다우 구성 종목인 홈디포(26일)를 비롯해 51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
주택·소비·GDP 지표 `주목`	월가가 가장 신뢰하는 주택가격 지표인 스탠다드앤amp;푸어스(S&P)/케이스-섀ل러 주택가격 12월 지수(24일)와 1월 기존주택(25일) 및 신규주택 판매(26일)가 발표될 예정. 마켓워치의 집계에 따르면 기존주택 판매는 전월의 474만채에서 480만채로 늘었을 것으로 추정. 반면 신규주택 판매는 33만 1,000채에서 32만채로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측됨. 컨퍼런스보드(24일)와 미시간대학(27일) 2월 소비자신뢰지수 등 소비지표도 예정돼 있음.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정치(27일)도 발표될 예정.
다우지수 6년만에 최저치 기록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도 바닥을 6년만에 최저치 수준으로 하락. 지난 한주간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6.17% 하락.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와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각각 6.07%, 6.87% 하락.
유럽 정상들 "금융시장 광범위한 규제·감독 필요"	유럽 정상들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모여, 오는 4월2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담에서 취할 유럽의 입장을 이같이 정리.유럽 정상들은 이날 채택한 성명에서 "금융시장에 새로운 신뢰를 불어넣고 세계 경제를 성장세에 올려 놓기 위해서는 명확한 메시지와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

제목	주요 내용
금값 1년만에 1,000달러 돌파	글로벌 경기후퇴(recession) 우려와 금융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부각된 결과. 20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금 4월물 인도분 가격은 온스당 25.70달러(2.6%) 오른 1,002.20달러로 마쳤음. 장중에는 1,007.70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음. 금 가격이 온스당 1,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여만에 처음. 최근 동유럽발 금융위기로 글로벌 경기후퇴가 보다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려들고 있음.
도요타, 올해 글로벌생산 대수 20% 감축	도요타는 최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신차 판매량이 크게 줄면서 올해 생산계획 역시 크게 축소했음. 도요타가 연간 생산계획을 700만대로 이하로 낮춰 잡은 것은 5년만에 처음. 도요타는 올해 판매량 역시 700만대 가량으로 설정해 지난 해보다 10% 낮춰잡고 이같은 계획을 부품업체들과 다른 협력업체들에게도 통지할 예정.
中 경제 올 8% 성장 가능"-中 교통은행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5위 상업은행인 교통은행의 리오팡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2009년 중국 거시경제 및 금융상황 전망`이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는 하반기 회복 조짐을 나타내며 올해 8%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음. 리� 이코노미스트는 "일부 경제지표를 보건대, 중국 경제는 가장 험난한 시기를 빠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전망.
취약계층에 10조원 이상 재정지원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발생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5조~20조원 가량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다음달 중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각 부처로부터 받은 추경사업의 효율성을 분석 중. 정부는 이 가운데 10조원 이상을 일자리 지키기나 직접적인 취약계층 보호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이나 수출기업 지원 등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쓴다는 계획.
아시아공동기금 800억 불에서 1,200불로 확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태국 푸켓에서 열린 `아세안(ASEAN)+한중일 3개국` 특별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이같은 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 또 역내 경제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역내 경제감시기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하고, CMI 체제하의 자금지원 중 IMF 프로그램과 비연계되는 비중을 현행 20%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기로 했음.
SK그룹, 내년까지 녹색기술에 1조 투자	SK그룹은 오는 2015년까지 녹색기술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7대 과제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음.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자원화, 그린카, 수소연료전지, 첨단 그린 도시(u-Eco City) 등 7대 중점과제를 바탕으로 유관 계열사들이 보유한 기술을 결집시키기로 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